

清心亭

김 두 현 / 문화재연구소



1

1. 清心亭 位置와 建立

청심정은 반도지 아래측 연안에 있는 尊德亭 북측 구릉지에 위치하고 존덕정 남쪽에 있는 砥愚榭의 뒷편에 자리 잡고 있다.

청심정은 원래 淺愁亭의 옛터에 숙종 14년(1688년)에 건립하고 改名하였다 한다.

궁궐지에는 청심정 위치와 건립 연대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清心亭在砥愚榭北 南曰太清門 即淺愁亭舊基. 肅宗十四年戊辰建 改今名 南庭鑿石爲冰玉池 亭東夾谷架虹橋以通往來」

2. 清心亭의 構造

2-1 平面

清心亭의 基壇은 낮게 한단으로 造成하고 기단 위에는 정면과 측면으로 각 1間을 구성할 수 있는 柱礎石을 화강석으로 곱게 다듬어서 설치하였다.

기둥은 원주를 사용하고 기둥 하부는 인방을 사용하여 결구하고 인방 좌측과 우측면에는 팔괘의 三(兌)와 三(離)가 표시되어 있다.

마루 귀틀은 보통 인방 안쪽에 귀틀목을 덧댄 후 동귀틀을 연결 설치

하나 청심정의 귀틀은 인방에다 설치하고 마루판을 짜 맞추었다.

기단 위의 정자 출입구 아래는 디딤돌을 놓아 출입에 편리하도록 하고 인방 하부의 고막이는 화강석으로 마감하였다.

2-2 架構

기둥 상부는 장여를 사용하여 결구하였으며 장여 위에는 도리를 얹고 왕지도리 위에는 갈모산방을 얹어 처마의 곡을 잡아 주었다.

도리의 중심부에 보를 걸고 그 상부 중앙에 8모활주를 네모축을 내어 맞추어 세웠다.

4귀에 설치되는 추녀 끝은 건물 중심에 모여 활주의 4면에 맞추었다. 처마에는 15개의 모서까래(角椽)를 걸었다. 서까래는 추녀 좌우로 각 5개씩은 선자형으로 배치하였고 중간 2개씩은 나란히 서까래로 추녀 옆에 맞추었으며 중앙에 있는 1개의 연목은 활주에 설치되었다.

보 위에 짧은재(짧은도리 및 장여)를 활주의 주위에 둘러대고 추녀와 연목을 받는 구조재로써 활주에 맞추어지는 추녀와 연목을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연목 위에는 개관을 깔았으며 지붕

에는 소와(小瓦)를 얹고 지붕 정상에는 절병통을 얹었다.

秘苑 내에는 20여동에 달하는 정자 및 樓가 산재해 있으나 清心亭과 같이 모서까래를 사용하여 선자서까래와 나란히 서까래를 설치한 정자는 없을 뿐 아니라 지붕 架構를 치장하거나 장식적인 부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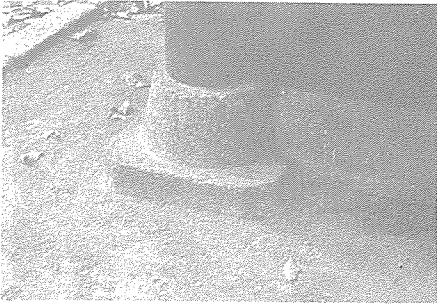
기둥은 석간주로 단청하고 그 외의 부재들은 뇌록 단색을 칠하고 있으며 추녀와 연못 뱃바닥에는 굿기단청을 하였다. 도리의 마구리에는 太平花를 그려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하고 소박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청심정은 옛기록에 따르면 지붕에 청기와를 얹어 화려하게 꾸미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建立後 몇번의 改修에 변경되어 지금의 검정 토기와 지붕으로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3 冰玉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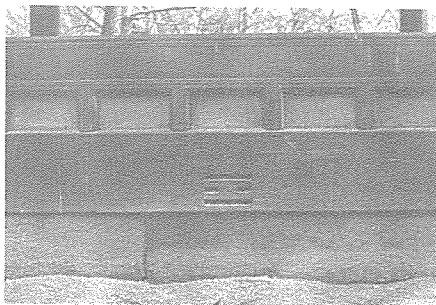
清心亭 앞뜰에는 네모 반듯한 石蓮池가 자리 잡고 있다. 石蓮池는 長方石의 가운데를 파내어 만든 것이다.

석연지 앞에는 조각하여 만든 거북이가 따로 앉혀 졌으며 거북이의 머리는 석연지를 향하여 내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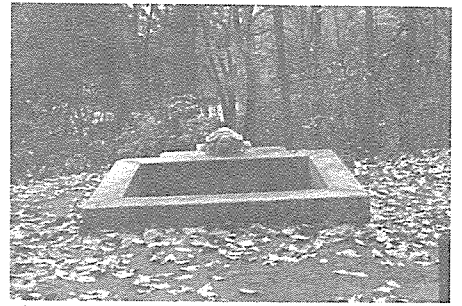
거북이의 등에는 御筆 冰玉池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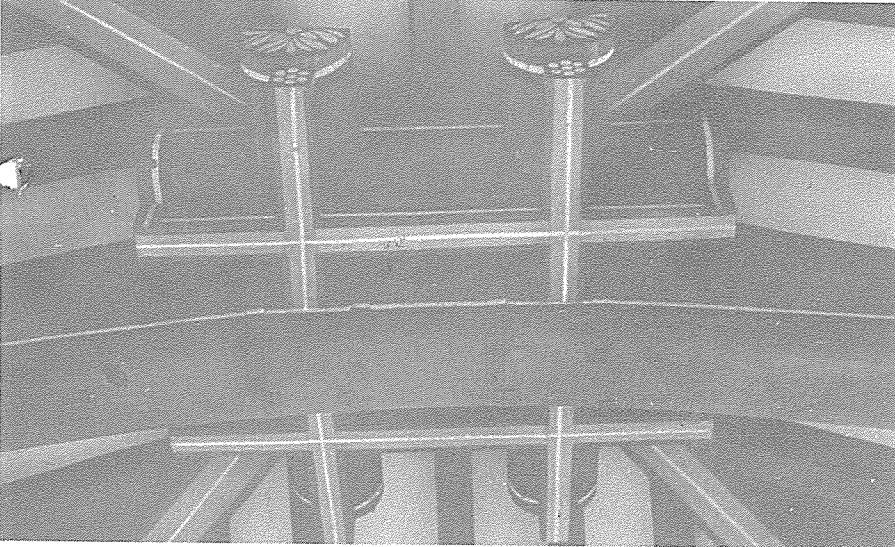
2



3



4



5



6

1. 청심정 전경
2. 주초석
3. 三離
4. 빙옥지 전경
5. 보와 단도리
6. 빙옥지 거북이

음각으로 刻銘되어 있으며 궁궐지에는 「鑿石爲氷玉池(有御筆氷玉池三字)」라고 표기하고 있다. 方池와 거북을 함께 보면 음양의 이치가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에 있는 鮑石亭도 曲水宴을 하는 자리로써 曲水도랑은 여인의 像을 연상케 하는 것이며 여기에 거북머리가 물을 뿜어 내는 것과 같아 석연지와 거북이를 연관 시켜 보면 氷玉池에 음양이 적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方池는 王門이라 할 수 있으며 귀두는 男像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북이는 곧 양을, 方池는 음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2-4 八卦의 兌와 離

清心亭 引枋에 三(兌)와 三(離)가 표시되어 있다. 이들은 太極의 八卦

에 나타나는 문양으로 무한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八卦는 본래 中國 上古時代 복희씨가 지었다는 여덟 가지의 卦로 周易에서 自然界와 人事界의 모든 음양을 겹쳐서 여덟 가지의 象으로 나타낸 것이다. 太極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清心亭 引枋에 표시되어 있는 八卦의 兌와 離의 뜻은 「物에서 澤과 火를 나타내나 澤은 못 아래 못이 거둬짐과 火는 밝음을 뜻하며, 人에서는 少女와 中女를 가르키나 이것은 아름다움이 거둬 중첩됨을 말한다. 德에서는 說을 끝이 없거나 無疆함을 뜻하고 麗는 日月, 즉 乎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物·人·德에서 나타내는 여러가지의 뜻으로 보아 청심정에 표시되어 있는 兌와 離는 청심정과 빙옥지 그리고

주위 경관이 대단히 아름답다는 것을 八卦로 나타낸 것으로 짐작이 간다.

3. 清心亭 空間構成

궁궐지에 기록된 청심정기에는 청심정에서 바라보는 주위 경관과 공간 구성에 대하여 매우 아름다웠던 것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청심정 주위 계곡에는 아직도 많은 自然石들이 남아 있어 당시의 환경과 情景이 되살아 나듯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현재의 공간 구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현상들을 되새겨 보는 것도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 궁궐지에 표기한 것을 다음에 옮겨 보았다.

「清心亭記曰 昌德宮之後苑有一亭樹名曰 清心重岡疊巒左拱右抱碧瓦朱欄耀日眩目蒼松簇簇而環擁翠栢森森而參差前臨碧荷後背玉充虹橋縹緲而逼雲瑞氣葱蘢而蟠空若夫春和日朗惠風浩蕩白岳霧捲終南嵐晴天外嶙峋望如青黛雨餘綠草視若錦茵嬌花吐萼而風送暗香細柳戰華而鶯囀好音渚禽翺翔銀鱗浮浮鶴唳鹿呦千萬其狀此實清心亭之大觀…」

태(太)				극(極)				太極
음(陰)				양(陽)				兩儀
		秋		夏		春		四象
坤(☷)	艮(☶)	坎(☵)	巽(☴)	震(☳)	離(☲)	兌(☱)	乾(☰)	八卦
地	山	水	風	雷	火	澤	天	物
母	少男	中男	長女	長男	中女	少女	父	人
順	止	陷	入	動	麗	說	律	德
西南	東北	北	東南	東	南	西	西北	方
少陰	少陽	少陽	少陽	少陽	少陰	少陰	老陽	